

〈일반논문〉

개항기(1876~1910) 중앙권력의 江華지역 군대 활용 양상 변화와 그 성격*

김 항 기 **

〈목차〉

- I. 머리말
- II. 개항 전후 강화지역 군대 상황
- III. 강화지역 군대 활용 양상
- IV. 중앙권력 해체와 의병으로 전환
- V. 맺음말

[국문초록]

강화도는 전통적으로 수도방어의 핵심지역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전국 각 지역과 뱃길로는 연결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피난처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우월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포 함외교를 통해 동아시아를 침략한 제국주의 열강은 바다를 통한 침략을 시작했고 강화도 그 중심에 있었다.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강화도의 군대를 활용하였다. 병인양요 직후인 1866년 10월 16일 沁都營造都監을 설치하고 1866년 11월 16일 진무영을 정2품 아문으로 승격시켜 진무영을 중앙군영

* 이 논문은 2022년 4월 23일 인천문화재단·한국역사연구회 공동학술심포지엄 「중앙권력과 인천의 역할」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과 동일한 지위에 위치시키면서 해방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 중앙권력의 국가정책은 대원군기와는 달리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완화해 나가면서 진무영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가 약화되었다.

이후 고종은 강화지역 군대는 중앙권력에 필요에 의해 권력행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1894년 고종은 동학농민군 진압에 강화도 군대를 동원하였다. 또한 군대의 임무가 아닌 치안유지 활동에도 강화도 군대를 활용하였다. 중앙권력이 통감부로 이관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강화도 지역의 군대 역할은 다시 한번 변화하였다. 중앙권력의 행사 수단이었던 군대에서 새로운 중앙권력인 일제에 저항하는 군대인 의병으로 전환 된 것이다. 권력을 지키던 군대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군대로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강화도 군대의 해산병들은 황해도를 비롯해 경기도·강원도 일대 의병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주제어

강화도, 진무영, 강화진위대, 강화의병, 고종, 대원군

I. 머리말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이 바다를 통해 침략을 시작했고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문호를 개방하였다.¹⁾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만국공법체제에 편입한 한국의 당면과제는 대내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이고,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이었다. 따라서 당시 국가를 운영하던 권력계층이 이를

1) 개항기(1876~1910) 국호는 조선~대한제국으로 이어진다. 시기에 따라 조선과 대한제국을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편의상 '한국'으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구명하는 작업은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중앙권력의 작용은 국가운영 전반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강화는 한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한강 하구에 위치하여 수도방어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육지와는 단절되면서 전국 각 지역과 수로로 연결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피난처였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은 바다를 통해 침략을 시작했고 강화는 피난처에서 최일선의 방어기지로 역할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개항기 강화지역 군대 변화는 당시 중앙권력이 가지고 있었던 국방 및 군사정책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강화도지역 군대에 대한 연구는 대원군 집권기 부국강병책의 관점에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전개양상과 조선의 대응, 진무영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었다.²⁾ 하지만 강화도 지역에 대해 특정한 연구는 아니고 전반적인 국방정책 속에서 강화지역의 기능이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강화도 지역 군대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태원은 강화지방대와 진위대의 구조와 기능에 구명하였다. 조선 후기 강화유슈부에 설치된 진무영의 중영 등은 국방과 치안유지를 담당하였으나 을미개혁으로 진무영이 폐지되면서 강화도의 주요 군진도 함께 폐지되었으나 국방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육군과 해군의 일부 병력을 잔존시켜 경기도 및 강원도의 국방과 치안유지를 하도록 하였고, 1896년 지방대가 창설

2) 대원군집권기 강화도지역 군사정책 관련 연구로는 연갑수, 「병인양요와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응」, 『군사 33』, 1996;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1997;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임재찬, 「병인양요 이후 지방포군의 증강실태」, 『신라학연구』 5, 2001;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연구』, 국학자료원, 2001 등이 있다.

되면서 강화에도 강화지방대가 설치되고 1900년 진위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을 살펴면서 강화진위대가 도적·의병의 체포와 각종 민란 진압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³⁾ 이외에 1893년 고종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에 대한 연구 등도 있다.⁴⁾ 이 같은 연구는 강화지역에 주둔했던 군대의 구체적 실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기적으로 대원군기, 갑오개혁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항기 전시기에 걸쳐 강화지역 군대변화의 성격을 살핀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중앙권력에 의한 개항기 강화도 지역 군대의 성격 변화는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전체적인 양상을 제대로 살펴볼 수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개항기 전반에 걸친 강화도 지역 군대의 성격과 활용 양상의 변화를 살피고, 나아가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고종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였는지 그 성격을 밝히는 작업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원군 집권기 강화도 지역의 방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강화지역 군대의 전반적 실태를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고종의 친정 이후 강화도 지역 군대 활용양상을 파악하고, 고종으로 대표되는 중앙권력이 붕괴된 이후 강화지역 군대가 중앙권력의 권력행사 수단에서 의병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승정원일기』, 『주한공사관기록』 등을 주사료로 삼았다. 이상의 사료들은 강화도 지역에 국한된 자료는 아니지만 개항기 전반적인 정치상황에서 강화도 지역 군대를 권력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였는

3) 서태원, 「강화지방대·진위대 연구(1896~1907)」, 『한국사연구』 168, 2015.

4) 김재승, 『한국근대해군창설사』, 해안, 2000.

지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II. 개항 전 강화도 군대의 상황

강화는 한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한강 하구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수도방어의 핵심지역이었다. 강화는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전국 각 지역과 뱃길로는 연결되는 전략적 위치였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피난처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은 우월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포함외교를 실시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침략을 시작했고 강화는 더 이상 왕실의 피난처가 아니라 최일선의 방어기지로 역할하게 된다.

1863년 고종 즉위 이후 흥선대원군(이하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원군 집권 초기 조선의 대내외적 환경은 혼란스러웠다. 내부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에서 기인한 각종 민란이 발생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열강이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1860년 청의 수도 북경이 영불연합군에게 함락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대원군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게 점령되었던 강화는 서울을 지키는 요충지에 위치한 요새로 해양에 기반한 제국주의세력이 침략하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대원군 국방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조선후기 4도 우수제 시행으로 인해 강화유수는 강화유수부와 함께 진무영과 통어영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강화유수는 단순한 지

방행정관이 아닌 京職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⁵⁾ 강화도 중심의 국방력 강화조치는 병인양요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직후인 1866년 10월 16일 강화에 沁都營造都監을 설치하고 知宗正卿 이경순, 이경하, 좌참찬 신관호, 강화 유수 이장렴, 좌윤 정규응, 우윤 양현수로 하여금 전함과 군기 등을 수리하도록 하였다.⁶⁾ 또한 진무영 강화를 위해 양현수를 진무영 증군으로 삼고 진무사 겸 삼도수군통어사는 이장렴을 임명하였다.⁷⁾ 이장렴은 대원군의 측근으로 무관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대원군이 구상하는 국방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1866년 11월 16일 진무영을 정2품 아문으로 승격시켜 중앙군영과 동일한 지위에 위치시켰다.⁸⁾ 이외에도 부평부, 연안부, 통진부, 풍덕부를 전후좌우영으로 삼아 진무영이 해방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동과 영종도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진무영의 관할에 편입시켰다. 그 결과 진무영은 전후좌우영으로 부평부, 연안부, 통진부, 풍덕부를 좌우해방영으로 영종과 교동을 통솔하는 거대규모의 군영이 되었다.⁹⁾

또한 「鎭撫營別單」에 의하면 진무영은 포수 중심으로 병력을 강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무영의 총병력은 3,200여 명이었고 대부분 조총병으로 구성되었다.¹⁰⁾ 하지만 이 같은 진무영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미양요가 발생하자 미국 상륙군 부대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광

5)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강화사』 상, 2003, 326~330쪽.

6) 『承政院日記』, 「강도의 공해 등을 수리하기를 청하는 의정부의 계」, 고종 3년 10월 13일.

7) 『承政院日記』, 「병비의 관원 현황」, 고종 3년 10월 30일.

8) 배항섭, 『19世宗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2002, 57쪽.

9) 배항섭, 『19世宗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57~60쪽.

10)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1, 159~160쪽(이는 진무영 강화이전 강화도 지역 병력이 속오군 400~500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규모 병력증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보 손돌목돈대를 함락시켰다. 광성보 전투에서 미군의 피해는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조선 측 공식기록에는 조선수비병 전사자는 53~55명, 부상자 24명이었고, 미군측 통계에 의하면 전투가 끝났을 때 광성보 일대에 널려있는 시체수는 243구, 해협에 뛰어내려 익사한 장병이 100여 명으로 총 350여명의 조선군 피해가 있었다.¹¹⁾ 하지만 중앙권력은 패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종은 “洋夷가 和를 欲함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數千年의 禮義之邦을 어찌 犬羊과 相和할 수 있겠는가, 비록 幾年을 相持하더라도 반드시 痛絶할 것이다”라며 강경책을 유지했다.¹²⁾

그 결과 신미양요 후 강화지역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 되었고 더불어 강화 주변지역에서 해방론에 입각한 군사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특히 두 차례 양요에서 프랑스와 미국 함대가 이동한 경로인 염하 일대에 대한 방어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강화도 방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부도에 鎭을 설치하여 진무영의 전방 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대부도 주변의 영흥도, 이작도, 선재도, 풍도, 불도, 선감도 등 주변 섬의 전결과 호구를 대부도에 이속시키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정규적인 진을 설치하지는 못하고 이양선이 출몰할 수 있는 계절에 남양부사가 대부도에 진을 옮기고 남양부 포병 100명을 상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미국 함대가 정박한 곳이 인천 앞바다의 작약도와 월미도 연안이었기 때문에 인천의 군사적 중요성도 부각되기도 하였다.¹³⁾

하지만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 중앙권력의 국가정책은 대원군기와는 달리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이었다. 박규수, 오경석 등은 북경을 왕래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청의 양무운동에 대한 실

11) 한철호, 『한국근대의 바다』, 경인문화사, 2016, 49쪽.

12) 『고종시대사』 1, 고종 8년 4월 25일.

13) 노영구, 『조선후기 도성방어체제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18, 242쪽.

태를 인식했고, 프랑스·미국을 상대로 겪은 두 차례의 양요는 서구열강과 통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¹⁴⁾ 이와 함께 대원군 집권기 진무영을 중심으로 한 해방체계의 변화도 생긴다. 고종의 친정 초기 군사정책은 친위적 성격을 가진 무위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이었는데 이는 강화 진무영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⁵⁾ 외세의 침략이 다가오는 시점에 최일선의 방어력 강화가 아닌 중앙권력 유지를 위한 친위병을 양성하여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방어 체계에 약화를 가져왔다.¹⁶⁾

한편, 1854년 페리함대의 포함외교로 인해 미국과 수교하며 개항을 했던 일본은 서구 열강들과 함께 조선에 상호 통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反洋 정서로 실패를 하였다. 하지만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운요호를 조선에 파견한다. 운요호는 부산을 지나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북진하여 현재의 강화 초지진 앞바다에 도달했고 9월 20일, 이노우에 소좌를 포함한 일부 승조원들이 담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단정을 타고 강화도의 초지진으로 접근하였다. 조선 수군이 일본군 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단정을 향해 돌아가라고 명령과 함께 경고 포격을 가하였고 단정은 이에 맞서 소총으로 응사 후 복귀하였다. 운요호는 조선군의 공격을 빌미로 강화도에 접근하여 초지진에 함포를 발사하였고 이후 영종도를 공격했다. 육상병력을 영종도에 상륙시켜 물품을 약탈하고 성내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 전형적인 포함외교 통해 조선은 세계 자본주체제로 편입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중앙권력 변화로 인한 강화도

14) 한철호, 『한국근대의 바다』, 57쪽.

15) 배항섭, 『19世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146쪽.

16) 일반적으로 고종의 친정 이후 강화도 방어에 약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운요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병인, 신미양요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하도록 하겠다.

지역 군진 개편이 있었다.

Ⅲ. 강화지역 군대의 변용적 활용

중앙권력이 선택했던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강화도조약을 통해 필요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강화지역 군대의 성격은 변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 전후 국가 국방정책의 중심지였던 강화 군대의 중요성은 역화되지 않았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의 지원을 받은 김윤식이 강화유수가 되면서 원세개 등의 도움을 받아 청나라식 군사훈련을 통해 군비를 강화하였다. 강화도는 안정적으로 군사력을 키울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은 물론 지리적으로 서울로 향하는 입구 지역에 군사적 거점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¹⁷⁾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반청 노선을 택함에 따라 강화지역 군대도 다시 변화하게 된다. 기연해방영창설이 그 예이다.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자 고종은 반청정책의 일환으로 1883년 강화도에 畿沿海防營을 설치하였다. 지휘관인 기연해방사무는 민영목이 보임되었다. 1884년에는 강화도에서 김윤식의 주도 하에 육성된 병력을 넘겨받았다. 고종은 기연해방영을 통해 청의 연해 진출을 제지하고 조선의 독자적인 근대적 해군 창설을 시도하였다.¹⁸⁾ 그러나 이듬해인 1884년에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청나라의 간섭으로 군제 개편이 진행되면서 기연해방영은 통위영으로 흡수된다.

이후 강화지역 군대는 중앙권력에 필요에 의해 권력행사의 도구로 활

17) 연갑수,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1993, 120쪽.

18) 연갑수,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25쪽.

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 동원이었다. 1894년 5월 20일 京軍이 동학농민군에게 패배하자 정부는 江華兵 약 400여명을 증원군으로 全羅道에 파견하였다.¹⁹⁾ 강화병은 전주성 서문에 진을 치고 농민군을 공격하였으나 전주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²⁰⁾ 경군을 거느리고 전라도로 내려간 초토사 흥계훈은 관군 중에서 정예로 꼽히는 강화병이 증원되었음에도 농민군을 진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증원군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고종과 민씨척족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淸軍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李鴻章은 조선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함 두 척과 병력 1,500명을 파병하여 6월 10일 충청도 아산에 상륙하였다. 외국군대의 진주 소식을 들은 농민군은 관군의 강화요구에 응해서 정부와 타협을 하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관군도 동학농민군이 해산하고 며칠 뒤 강화병 300명만 남겨 전주성을 지키게 하고 대부분은 철수하여 서울로 돌아갔다.²¹⁾ 즉 강화병은 동학농민군의 진압부터 전주화약 이후 처리과정에서 중앙권력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화의가 성립되어 정국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청병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청은 이를 듣지 않았다. 오히려 증원군을 아산에 상륙시켜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시도하였다.²²⁾ 일본 또한 청군의 파병을 빌미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및 충청도, 평안도 지역

1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권, 「東學黨 진압차 파견된 京軍의 패배 보고」(1894년 5월 20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全羅·忠淸兩道民亂의 件」(1894년 5월 23일).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全州城 함락 후 官賊兩軍의 運動에 관한 彙報」(1894년 6월 7일).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全羅擾亂彙報」(1894년 6월 17일).

22) 한우근, 『東學과 農民蜂起』, 일조각, 1983, 134쪽.

은 전쟁터가 되었으며 일본군의 경복궁을 습격으로 인한 개화과정권이 중앙권력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전주화약 이후 3~4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의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자 동학농민군은 다시 봉기하게 된다.²³⁾ 농민군의 재봉기는 ‘斥倭’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걸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에 중앙권력은 다시 강화병을 동원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강화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 각 지역과 뺏길로는 연결되고 있었다. 특히 서해 뺏길로 이어진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에 군대가 필요할 경우 투입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재봉기한 농민군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삼례에서 집결하였고, 남원의 김개남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농민군은 충청감영 소재지인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 북상하였다. 공주는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농민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공주 공격을 앞둔 전봉준은 남북접 농민군이 합세한 직후인 10월 16일 항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관군의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냈다. 전봉준은 공주 공격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0월 19일 무렵에는 은진과 노성 사이에서 농민군의 활동하기 시작했고, 23일 논산의 농민군은 공주에서 남쪽의 경천을 점령하였다. 이후 약 20여 일 동안 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 사이에는 공주감영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농민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논산에 다시 집결하였고 11월 8일 다시 공주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는 농민군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또 다시 강화 군대를 동원한다. 강화 중군 황현주로 하여금 강화병 100여명을 이끌고 논산 노성 지방으로 가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강화병은 총과 탄약의 부족으로 즉시 투입되지는 못했다.²⁴⁾ 동학농민군 진압에 투입된 강화병의 실질적 규

23) 농민군의 재봉기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은 서영희, 「1894년 농민전쟁의 2차봉기」,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1995, 141~166쪽.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特派教導中隊 및 統衛兵·江華兵 領率官 姓名의

모는 300여명으로 보인다. 당시 중앙권력을 장악한 김윤식은 인천에서 일본군과 강화병이 합세하여 출격하도록 요청하면서 강화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仁川港에 주둔하고 있는 江華中軍 黃憲周의 보고를 받아보니, 그 내용에, “정탐인이 內浦에서 돌아왔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內浦 諸邑의 匪勢가 더욱 확대되어 湖南의 적도와 서로 호응하여 일어나고 있고 定山과 禮山 등지에서 패한 淸軍 백수십 명이 兵器를 들고 東匪를 돕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모두 적도로 변하여 도로가 두절되었으니, 적은 군대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江華兵 300명이 갖고 있는 洋槍·毛瑟·回籠·新馬路 및 前門槍 등은 그 모양이 각기 다르고 나뉜 탄환도 너무나 적어 만일 접전을 했을 경우 다시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닌 탄환과 洋槍도 쓸모가 없어 싸우지 않고도 스스로 궤멸될 기세가 엿보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이 보고에 의하면, 강화병은 군량과 병기는 적지만, 國事를 중시하고 中軍을 격려하여 정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은 말에 의하면, 적의 기세가 매우 충천하여 우리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고 中軍은 걱정한 나머지 병이 들어 지금 병석에 누워 있다고, 사람을 시켜 자기의 고만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서한으로 간청하오니, 귀 공사께서는 함께 구제한다는 뜻으로 인천항에 주둔하고 있는 귀 군관에게 칙령을 내려, 병사를 나눠 강화병과 함께 미리 가게하고 지휘도 받게 하십시오.²⁵⁾

즉 강화병이 비록 준비는 부족하지만 國事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조선에서는 가장 준비된 군대이니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을 진압하도록 요청

問議,(1894년 11월 2일); 「上件 領率官姓名 및 實情回報」(1894년 11월 2일).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仁川日軍과 江華兵 合勢出擊要請」(1894년 11월 13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조선정부군을 통제하는 지휘권까지 가지고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결국 강화병도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 농민군을 진압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강화병은 농민군 최후의 순간까지도 진압 활동을 하였다. 김개남을 체포한 것도 강화병이었다. 김개남이 11월 23일 전주에서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으나 12월 1일 태인 산내면 종송리에서 11월 30일부터 추적해온 강화 兵房 황헌주와 前哨隊官 박승규가 이끄는 관군 80명과 포교 3명에게 체포되었다.²⁶⁾ 강화병은 동학농민군의 ‘처리’ 과정에서 중앙권력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강화병은 수도를 방어하는 핵심부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중앙권력에 위기가 발생하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강화병은 군 본연의 임무가 아닌 치안유지 활동에도 동원되었다. 갑오개혁 이전 조선의 치안유지 핵심기관은 포도청이었다.²⁷⁾ 포도청은 근대적 경찰기구와 기능적으로는 유사했지만 큰 차이점이 있었다. 우선 포도청은 병조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軍과 警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일원화 되지 않았다. 포도청의 관할 지역은 한성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일부 권역이었고, 각 도와 군의 지방관이 행정권과 징세권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갑오개혁을 통해 제도적으로 경찰권이 신설되었다. 특히 갑오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유길준의 경우 경찰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견문』에서 “경찰제도를 두는 근본 의도는 나라의 치안이 유지되는데 힘세 개명한 사회로 진보하는 것을 지키는데 있다. 그러므

26) 『동학농민혁명사일지』, 「김개남, 태인에서 체포」(1894년 12월 27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全羅監司의 金介男獨斷處刑事件의 詰問과 召還處分 요구에 대한 解明 및 諒解 요청」(1895년 01월 08일)

27) 이하 포도청과 관련된 내용은 차인배, 「朝鮮時代 捕盜廳 研究」,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을 기반으로 작성함.

로 법제도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의 안녕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몰아내며, 평온케 하려는 취지에 걸림이 되고 사회의 분위기를 손상시키는 자가 있으면 억제한다”²⁸⁾ 라며 경찰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당시 중앙권력은 군대와 다른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관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병력을 경기도내 치안유지 활동에 사용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국신문』에 의하면 1899년 3월 4일 강화부 순교청 소속 별순교 윤학조, 김치언, 윤치근 등이 각 포구와 섬들을 돌아다니며 배삯 등을 명분으로 백성들에게 재물을 토색한 사건이 벌어졌고, 백성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²⁹⁾ 그 결과 치안유지 활동에 강화병을 동원하였다. 강화병의 치안유지 활동은 강화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었다. 300여명의 강화병은 강화도를 넘어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에 파견되어 치안유지 활동을 하게된다.³⁰⁾ 1899년 12월 19일 청원군 공립소학교에 수백명의 사람이 학교를 부수고 군수와 교원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강화병이 출주하여 이 사태를 수습하였다.³¹⁾

1901년 발생한 제주민란에도 강화병이 투입되었다.³²⁾ 관군으로 동원

28) 유길준, 『서유견문』, 제10편 「경찰제도」(허경진 옮김, 서해문집 2004), 292쪽.

29) 『제국신문』, 「잡보」, 1899년 3월 4일.

30) 서태원, 「강화지방대·진위대 연구(1896~1907)」, 『한국사연구』 168, 2015, 177쪽.

31) 『제국신문』, 「잡보」, 1899년 12월 19일.

32) 제주민란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1901년 4월 9일 제주에서는 강우백을 중심으로 대정군민들은 소장을 올려 천주교도들과 봉세관의 폐단과 수탈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4월 12일에는 정의군에서도 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정 군수 채구석과 향장 오대현 등은 천주교인들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대정군 상무사(商務社)를 조직하였다. 4월 29일 천주교인들과 상무사원들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천주교도 김병현은 천주교인 5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옥문을 부수어 천주교인을 빼내고 상무사원을 잡아감으로써 사건이 격화되었다. 상무사는 민회를 개최하여 천주교인들의 교폐와 봉세관의 세폐를 성토하고 제주읍성으로 가서 등소하기로 결의하였다. 제주주민들은 제주목사에게서 각종 폐단을 정부에 보고하여 혁파할 것을

된 강화진위대 1개 중대가 제주민란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였다.³³⁾ 이후에도 광주진위대 1중대, 수원진위대 1개 중대, 프랑스군 75명과 함께 강화진위대 1개 중대가 추가로 증파되어 제주민요를 수습하는 실질적인 주력 군대의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대규모 민란 사건은 경찰력 혹은 제주도 내의 군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 중앙정부는 강화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투입하여 치안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1904년 경기 양천 공암포구의 도적을 격퇴하기도 하였고, 1905년 강화진위대는 치안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개성의 인삼밭을 지키기 위해 100여명의 인원이 파견되었다.³⁴⁾ 당시 홍삼은 중요한 무역 상품으로 1899년부터 황실이 홍삼전매를 독점하였고 그 수입은 황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는 점에서 개성 인삼밭 경계 임무는 중앙권력의 재정권을 안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외에도 경기 부평, 양주 등지에서의 순찰 등 다양한 치안유지 활동에 동원 되었다.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도 강화지역 군대의 역할 중 하나였다. 인천항을 통해 외국에서 대사가 오는 경우 강화진위대 병정 200여명이 투입되어 예포를 쏘는 행사를 하였다.³⁵⁾ 이처럼 개항 이후 강화지역의 군대는 동학농민군을 비롯해 각종 민란을 진압하는 치안유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수도에서 가깝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라는 점과 동시에 해로를 이용한 신속한 부대배치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특

약속받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천주교인들은 교인 1,000여 명을 소집하여 제주목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어 무장하였다. 무장한 천주교인들은 농민들에게 발포하였고 오대현 등 여섯 명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조세 수취 구조에 대한 반봉건적 운동은 무력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정진각, 「1901년 제주민란에 관한 일고 - 소위 신축교난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3, 1983, 78~90쪽).

33) 『제국신문』, 「濟州騷報」, 1901년 6월 7일.

34) 서태원, 「강화지방대·강화진위대연구(1896~1907)」, 205~206쪽.

35) 『제국신문』, 「砲隊設施」, 1901년 8월 13일.

정으로 인해 중앙의 권력자들은 강화병을 적절하게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1894년 강화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인 헤세 바르텍의 강화도 방문 기록에는 “해안의 고지마다 포안과 단단하고 육중한 문이 달린 요새들의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다. 하지만 흉장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고, 반즈음 폐허가 되버린 요새들에는 대포 한문, 군인 한명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적은 이미 이 나라에 들어와 있었다.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미미한 저항조차 시도해보지 않았고 천황의 군대는 마치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처럼 서울에 입성했다”며 강화지역의 요새를 묘사하고 있다.³⁶⁾ 당시 강화지역 군대 나아가 한국의 상황에 대한 단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치안유지 기능은 조선 후기 이래 지방군이 가지는 특징이었다. 따라서 강화지역 군대만이 각 지역의 치안유지 활동에 동원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시기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치안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찰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권력은 강화병으로 대표되는 지방군을 치안유지 활동에 동원하였다. 고종으로 대표되는 대한제국기 중앙권력은 왕권강화가 곧 국가의 독립이라는 전근대적 권력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치안유지에 강화병을 동원했다는 점은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군대를 변용적으로 활용한 고종의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36)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정현규 옮김), 『조선 1994년 여름』, 책과함께, 2012, 63쪽.

IV. 중앙권력 해체와 의병으로 전환

중앙권력 행사에 핵심은 군대이다. 군대는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조직으로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다. 근대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민군제에 기반한 군사제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종으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의 중앙권력도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군사력 강화의 핵심은 대규모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징병제였다. 1901년 원수부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남성을 병적에 편입시키는 징병제 시행안을 마련하였고, 1903년 3월 조선시대의 5위도총부 산하 5위체제 형태로 징병제를 실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동학농민전쟁에서 보여준 민중에 대한 대응, 이후 벌어진 각종 민란에서 철저한 탄압을 실시하였기에 징병제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있었고 양반계층도 반발하였다. 또한 고종은 독립협회의 의회 개설운동으로 인해 확산되던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제군주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징병제는 실행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근대적 개념의 징병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문제였다.³⁷⁾ 따라서 징병제를 통해 중앙권력 행사를 위한 군대를 조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징병제는 실행되지 못했고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1904년 2월에 일제가 러일전쟁을 도발하자 조선 정부는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2월 9일 서울에 입성하여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攻守와 助日’을 앞세운 의정서의 체

37) 왕현중,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보』 208, 2010, 26~28쪽.

결을 강압하였다. 일제의 강요 아래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가 이지용과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체결되었다. 모두 6개조로 된 의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전을 피할 것,

제3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에 의하거나 또는 내란에 의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신속하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앞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력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제5조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않을 것,

제6조 조약에서 미비한 사항은 양측 대표가 협의하여 시행할 것 등이었다.³⁸⁾

이 의정서는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과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데 한국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한국 침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다.

이후에 일제는 이를 근거로 '對韓方針', '對韓施設綱領', '細目' 등을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³⁹⁾ 대한방침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상 보호의

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8, 「大韓帝國 官報에 게재된 韓日議定書 全文」(1904년 3월 8일).

3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일본 정부의 對韓 施政 방침 훈령 示達 건」(1904년 7월 8일).

실권을 확립하고 경제상으로 이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침략 의도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대한시설강령에서도 '外政', '財政'을 감독하고, 교통과 통신을 장악한다고 명시하여 한국의 토지는 일본군의 군용지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말에는 한국의 통신 기관을 군용으로 강제 수용하였고, 5월에는 한국과 러시아 간에 맺은 모든 조약을 폐기시키고, 철도 부설권과 통신망 가설권 등 경제적 이권은 일제가 차지하였다. 「한일의정서」에 의해 국제법적 근거 없이 한국에 들어온 일본군의 주둔은 합법화되었고 군대의 보급과 연락에 중요한 철도, 전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04년 7월 한국에 군율을 시행하였다.⁴⁰⁾

통감부 설치 이후 고종으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의 중앙권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통감부는 일본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독립기관이고 통감은 '천황에 직예한 천황권의 대행자'였기 때문이다.⁴¹⁾ 또한 통감은 외교문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시정사무를 감독하고 한국의 질서유지와 안녕을 명목으로 한국수비대 사령관에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다. 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국정부에 실행을 요구하거나 집행 후 한국정부에 통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²⁾ 또한 1906년 「통감부령공문식」을 반포하여 통감이 해당 관청에서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서도 이를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각부의 관리를 감독할 수 있었다.⁴³⁾ 따라서 통감부는 실질적인 중앙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07년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차관임명권 등을 탈취하면서 조약의 부속 밀약으로 「한일협약규정실행에 관한

40)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576쪽.

41) 강창석, 『조선통감부연구』, 국학자료원, 1994, 29쪽.

42) 이상찬, 『통감부 설치와 한국식민지화』, 2009, 54쪽.

43) 통감부령 제4호, 「통감부령공문식」, 『통감부법령자료집』 상, 1972, 20쪽.

각서」를 교환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군비의 정리’ 항목에서 “이 기회에 한국 군대는 황실 경호를 위해 1대대를 남기고 그 외에는 전부 이를 해산할 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쯤 한국정부가 이를 승낙하게 하고 각서 중의 한 조건으로 해 두기로 했음. 더욱이 장래 징병법을 공포하고 유력한 군대를 조직할 요건”으로 군대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⁴⁴⁾

강화지역 군대도 군대해산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강화지역 군대는 이미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진위대에서 분견대로 격하되었다. 그 결과 1901년 진위대 시절 500여명이었던 병력은 51명 정원으로 축소되면서 수원진위대 예하 부대로 재편되었다.⁴⁵⁾ 나아가 강화군수 정경수에 의해 강화진위대 소관으로 관리되었다가 폐지된 교련장에 농림장을 설치되었다.⁴⁶⁾ 이 조치는 한국의 중앙권력을 차지해가던 통감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었다. 훈련지를 농림장으로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강화병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군대해산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군대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던 강화지역 군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군대해산은 강화지역 군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원래 예정된 군대 해산일은 8월 11일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군대 해산 소식이 알려지자 강화 군대가 동요하자 해산식을 9일로 앞당겼다. 해산식이 끝나자 강화분견대 병력 50여명은 강화주민들과 합세하여 무기고를 점령하고 강화에 사는 일본인을 공격하였다.⁴⁷⁾ 일진회 출신 강화군수 정경수는 영등포로 도주하였다. 하지만 강화분견대 출신 서지석 등 10여명이 풍덕군 후

44) 『承政院日記』,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들을 뽑고 그 외의 군대는 일시 해산한다는 조령」, 고종 44년 6월 22일; 『統監府文書』 3권, 「한국군 해산에 관한 件」(1907년 07월 28일).

45) 서태원, 「강화지방대·진위대 연구(1896~1907)」, 201~203쪽.

46) 『제국신문』, 「農照軍部」, 1907년 7월 26일.

47) 『제국신문』, 「江華騷亂」, 1907년 8월 13일.

릉의 재실로 가서 능침을 지키기 위해 보관되었던 서양총 8정과 탄약 200여발을 탈취하고 영등포에서 다른 3인의 병정과 합류하면서 정경수를 발견하였고 곧 그를 붙잡아 강화로 복귀하였다.⁴⁸⁾ 결국 정경수는 강화분견대 군인과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⁴⁹⁾ 일본인 우편소장도 강화분견대 및 주민의 공격을 받았으나 가족과 한국인 통역을 데리고 겨우 배를 구해 용산으로 피신하였다.⁵⁰⁾ 경찰은 강화분견대 봉기 배후에 이동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령으로 강화진위대장 출신 이동휘는 강화의 보창학교 교장, 대한자강회 지회장 등을 하며 당시 강화분견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화분견대가 봉기하자 이동휘, 한복흥학회 회장 강윤희, 봉사 흥택주 등 3인이 경시청에 체포되었다.⁵¹⁾

강화분견대의 봉기 소식을 들은 일본군 사령부는 수원진위대를 통해 진압하고자 시도했다. 주민들과 강화분견대 해산군인은 갑곶진 부근에서 교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무기와 탄약이 부족해지자 강화분견대 해산군인들은 인근 지역인 통진 등에서 추가로 무기를 확보하며 저항을 계속하였다. 일본군 수비대는 강화진위대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을 시작하였다. 우선 8월 10일 일본군이 강화 갑곶에 상륙하자 매복하고 있던 한국군이 기습하여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했다. 그러나 8월 11일 기관총을 앞세운 일본군 2개 중대가 증파되어 강화도 점령을 시도하였다. 강화도 함락이 다가오자 해산군인들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지홍윤 부대는 해서로, 연기우 부대는 장단으로 이동하여 저항을 계속하였다.

결국 일본군에게 강화는 점령되었고 경시총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가 강화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순검 3인과 함께 8월 14일 강화로

48) 『제국신문』, 「厚陵守護統被奪」, 1907년 8월 15일.

49) 『제국신문』, 「江華倅被害」, 1907년 8월 14일.

50) 『제국신문』, 「各地方情報」, 1907년 8월 14일.

51) 『제국신문』, 「三氏被捉」, 1907년 8월 15일.

왔다.⁵²⁾ 탈출에 실패한 해산병들은 체포되었다. 일본군은 강화를 점령한 후 강화성 각문에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해산군인들의 무기를 회수하여 가라총 250명, 흑색탄약 79개, 구포 240개 화승통 1,100병가 환도 및 탄약을 압수하고 불태웠다.⁵³⁾ 또한 항쟁에 참여했던 김동수 등 7인을 갑곶진에서 총살했다.⁵⁴⁾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던 김병수 등 7인은 압송 도중 순사를 죽이고 탈출을 시도하다 사살되기도 하였다.⁵⁵⁾ 이와중에 강화군 주사 황익주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군이 주민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교섭하기도 하였다.⁵⁶⁾ 이것으로 강화지역 군대의 저항은 일단락되었다.

1908년에 이르러서도 강화지역에서 의병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일제는 이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실시하였다.

제6사단장은 강화의 소탕을 획책하고 11월 26일부터 3일간 개성수비대에서 장교 이하 30명, 용산보병부대에서 장교 이하 70명, 해주수비대에서 장교이하 34명 연안수비대에서 장교 이하 7명을 8중대로 구분하고 강화 동부에서 제1일에는 송산동, 서문 외, 하일 선에, 제2일에는 인화선, 종로, 정포의 선에, 제3일에는 서쪽의 교동도, 매음도 전부에 걸쳐 토벌을 실시하였다. 이 토벌 중에 11월 26일 용산부대에 속하는 山本 특무조장 이하 7명은 정두동에서 약 20명의 폭도와 가까이에서 조우하면서 특무조장이 전사하고 상등명 3명이 부상당하면서 겨우 이들을 서북방으로 격퇴시켰다. 또 도변대는 동일 산문동에 약 20여명의 폭도를 발견하고 그중 4명을 사살한 것 이외에 소득이 없어

52) 『제국신문』, 「警總下江」, 1907년 8월 15일.

53) 『제국신문』, 「江華情形後聞」, 1907년 8월 17일.

54) 『제국신문』, 「江華安靜」, 1907년 8월 30일.

55) 『제국신문』, 「咸沒七人」, 1907년 8월 24일.

56) 『제국신문』, 「君主其人」, 1907년 9월 10일.

특무조장 이하 15명을 강화부 수비로 남기고 기타 29일 각 수비지로 돌아갔다. 아마 폭도는 대소탕을 당하자 배를 타고 황해도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⁵⁷⁾

1908년 11월 일제는 강화의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개성, 용산, 해주, 연안 일대의 병력을 동원해 강화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이동하며 의병들과 교전하였다. 그 결과 강화도 지역의 의병은 강화를 떠나 황해도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강화해산병으로 구성되 의병들은 황해도 평산, 경기도 장단 등지에서 활동하며 의병 항쟁의 한 축을 이루었다.

전기의병이 봉기했을 때 강화지역 군대는 의병 진압을 담당하였다. 1896년 지방대 설치당시 강원도 춘천 지방대가 5월에 설치가 결정되었다가 9월 폐지되었고, 원주지방대도 8월에 설치되었다가 9월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강원지역에는 실질적인 군대가 없는 상태였고 그 역할을 강화지방대가 대신하였다. 그 결과 1897년 원주지방대가 다시 창설될 때까지 강원도 지역의 의병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강화지방대가 원주에 주둔하였다.⁵⁸⁾ 하지만 1907년 군대해산에 따른 조치로 강화분견대가 해체되면서 강화의 해산 군인들은 의병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권력을 지키던 군대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군대로 그 성격이 변화 한 것이다. 이후 강화분견대 해산병은 황해도를 비롯해 경기도·강원도 일대 의병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5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2(「조선폭도토벌지」, 746~747쪽).

58) 서태원, 「강화지방대·진위대 연구(1896~1907)」, 203쪽.

V. 맺음말

이상으로 개항기 중앙권력이 강화지역 군대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강화도는 전통적으로 수도방어의 핵심지역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전국 각 지역과 뱃길로는 연결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피난처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우월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포함외교를 통해 동아시아를 침략한 제국주의 열강은 바다를 통한 침략을 시작했고 강화도 그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개항기 중앙권력을 차지한 집권세력이 강화도의 군대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그 당시 정치상황과 시대 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개항기 중앙권력의 강화지역 군대 활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 즉위 직후 실질적인 중앙권력을 행사하게 된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강화도의 군대를 활용하였다. 병인양요 직후인 1866년 10월 16일 沁都營造都監을 설치하고 1866년 11월 16일 진무영을 정2품 아문으로 승격시켜 진무영을 중앙군영과 동일한 지위에 위치시키면서 해방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 중앙권력의 국가정책은 대원군기와는 달리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완화해 나가면서 진무영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가 약화되었고 윤요호 사건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고종은 강화지역 군대는 중앙권력에 필요에 의해 권력행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1894년 고종은 동학농민군 진압에 강화도 군대를 동원하였다. 또한 군대의 임무가 아닌 치안유지 활동에도 강화도 군대를 활용하였다. 1901년 발생한 제주민란에도 강화도 군대가 투입되었고, 양천 공암포를 비롯해 개성, 부평 양주 등지의 다양한 지역의 치안유지는 물론 각

중 행사에서 예포를 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 치안유지 기능은 조선 후기 이래 지방군이 가지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대한제국시기 경무청으로 대표되는 경찰력이 치안유지 활동에 강화도 군대를 동원 했다는 점은 중앙 권력의 권력행사 수단으로 강화도 군대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중앙권력이 통감부로 이관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강화도 지역의 군대 역할은 다시 한번 변화하였다. 중앙권력의 행사 수단이었던 군대에서 새로운 중앙권력인 일제에 저항하는 군대인 의병으로 전환 된 것이다. 권력을 지키던 군대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군대로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강화도 군대의 해산병들은 황해도를 비롯해 경기도·강원도 일대 의병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개항을 전후한 시기 강화도지역 군대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최일선에서 방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개항 이후 중앙권력은 강화지역 군대를 동학농민군 진압, 단순 치안유지, 권력 과시를 위한 행사에 동원하였다. 일제의 침략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중앙권력은 국가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고 군대마저 해산 당했다. 그 과정에서 강화의 해산군인들은 권력유지를 위한 군대가 아닌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으로 전환하였다. 이 같은 강화지역 군대의 성격 변화는 개항기 군사제도의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3.11.12. 투고 / 2023.12.14. 심사완료 / 2023.12.18. 게재확정)

[Abstract]

The aspects of central power's use of the military in the Ganghwa area from 1876 to 1910 and its characteristics

Kim, Hangki

Ganghwa Island(江華島) traditionally served as a royal refuge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because it was a key area of the water defense and was a strategically important location connected to each region across the country due to its geographical specificity as an island. However, the imperialist powers that invaded East Asia through inclusion diplomacy based on their superior naval power began to invade through the sea, and Ganghwa was also at the center of it. Daewongun(興宣大院君) used the troops of Ganghwa Island as a key method of the policy of rejecting trade diplomatic relations. On October 16, 1866, shortly after Byeonginyangyo, the Simdoyeongjodogam(沁都營造都監) was established, and on November 16, 1866, Jinmuyeong(鎭撫營) was promoted to Jeong 2-pum Amun to serve as a liberation camp while positioning Jinmuyeong in the same position as the central military camp. However, since Gojong(高宗) began his family's government, the central power's national policy has eased the policy of rejecting trade relations, unlike the Daewon-gun period, weakening the defense system centered on Jinmuyoung.

Later, Gojong used the troops in Ganghwa as a tool for exercising power as needed by the central power. In 1894, Gojong mobilized

Ganghwa Island troops to suppress Donghak Peasant Army. In addition, Ganghwa-do used the military for security maintenance activities, not military duties. As the central power was transferred to the Residency-General and the troops were dissolved, the military role in the Ganghwa Island region changed once again. It was converted from a military that was a means of exercising central power to a righteous army that resisted the new central power, Japanese imperialism. As its character changed from a military that kept power to a military that resisted power, the dissolution soldiers of the Ganghwa-do arm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ighteous army resistance in Hwanghae-do, Gyeonggi-do, and Gangwon-do.

□ Keyword

Ganghwa Island(江華島), Jinmuyeong(鎭撫營), Ganghwa Jin'wi-dae(江華鎭衛隊), Ganghwa Righteous Army(江華義兵), Gojong(高宗), Daewongun(大院君)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동학농민혁명사일지』, 『서유견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통감부법령자료집』, 『統監府文書』

단행본

- 강창석, 『조선통감부연구』, 국학자료원, 1994.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강화사』 상, 2003.
노영구, 『조선후기 도성방어체제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18.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연구』, 국학자료원, 2001.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한철호, 『한국근대의 바다』, 경인문화사, 2016.

논문

- 김성혜, 1890년대 고종의 통치권력 강화 논리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경계』 78, 2011.
서치상, 「대원군집권기 축성에 관한 연구」, 『계획계』 29(1), 2013.
서태원, 「강화지방대·진위대 연구(1896~1907)」, 『한국사연구』 168, 2015.
연갑수, 「병인양요와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응」, 『군사』 33, 1996.
연갑수,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1997.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보』 208, 2010.
이민희, 「근대인의 눈에 비친 강화도의 제모습」, 『인천학연구』 33, 2020.
임재찬, 「병인양요 이후 지방포군의 증강실태」, 『신라학연구』 5, 2001.
정진각, 「1901년 제주민란에 관한 일고 - 소위 신축교난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3, 1983.

최취수, 「1910년 전후 강화지역 의병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8.

